

국가별 동향



영국

계란 낳는 장난감 닭 본 아기 반응은?



계란을 낳는 장난감 닭을 본 아기의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지난 2013년 초 유튜브에 올라온 ‘계란 낳는 암탉 보고 충격받은 아기

(Baby’s shocked reaction to an Easter hen laying eggs)’ 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 속 장난감 닭은 아기가 보는 앞에서 뒤통뒤통거리더니 잠시 후 계란 하나를 낳는다. 이 모습을 본 아기는 ‘이게 뭐지?’ 라는 표정으로 매우 놀란 듯 보인다. 계다가 장난감 닭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연달아 계란을 낳는다. 이에 아기는 놀라운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두 눈이 휘둥그레져 몸을 격렬히 흔들어난다. 아기는 급기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악”하고 소리를 지른다. [서울신문]

거대 계란 깨뜨리자...또 하나의 계란이? ‘희귀 이중계란’

거대 계란을 깨뜨리자 껍질을 가지 또 하나의 계란이 나오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당신의 뇌에 충격을 가하는 동영상



이라며 이를 소개했다. 동영상에는 희귀한 ‘이중계란’이 등장한다. 보통 계란의 2배 정도 크기의 이 거대 계란을 깨뜨리자 안에서는 보통 크기의 흰자와 노른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계란이 나온다. 껍질을 가진 계란이 하나 더 들어있던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완전히 형성된 계란이 암탉의 난소로 다시 밀려들어가 그 주위에 또 하나의 계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중국

닭 잡으려다 ‘파당’ 호랑이 굴욕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잡으려고 위로 뛰다가 미끄러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포착됐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중국 헝다오허즈 호랑이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가 식사 시간에 주어진 살아있는 닭을 잡으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을 한 관광객이 촬영했다. 특히 호랑이가 날쌔게 피하는 닭을 낚아채려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 호랑이는 사

실 날아오르는 닭을 쫓아 점프하다가 눈 쌓인 땅에서 미끄러진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순간은 미국 휴스턴에서 온 관광객 리비 장이 찍었다. 그녀는 “호랑이들이 식사 시간이 되자 저마다 닭들을 쫓아다녔다”면서 “한 호랑이가 넘어지자 사람들이 박장대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미 국

맥도날드, ‘장인이 구운’ 닭가슴살 샌드위치 출시

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날드가 최근 ‘장인’이 정성들여 구운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공식 홈페이지 메뉴에 올려 화제라고 한 외신이 전했다. 치킨 패티에 직접 간을 하고 하나 하나 앞뒤로 노릇노릇 구운 이 닭가슴살 샌드위치는 조만간 미국 전역에 출시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맥도날드는)모던하고 변화를 꿈꾸는 햄버거 전문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싱싱하고 미리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메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장 조사 기관인 민텔(Mintel)에 따르면, 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패스트푸드 전문점들의 74%가 메뉴에 ‘장인이 직접 조리한’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샌드위치나 버거 메뉴 중 33%에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붙었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바쁜 와중에도 정성들여 조리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대접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들어있다”고 평가했다. 맥도날드 역시 공식 홈페이지에 이 메뉴를 ‘100% 닭가슴살로 만들고 소금과 마늘, 파슬리로 완벽하게

간을 맞추었으며 장인이 직접 주방에서 구워낸 샌드위치’라고 소개한 바 있다. [코리아헤럴드]

미(美) 법원, ‘살모넬라 계란’ 양계업자에 실형

‘살모넬라 계란 파동’의 책임이 있는 미국 양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미 법원은 양계 시설이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 퀄리티 에그(Quality Egg)사의 임원인 오스틴 디코스터즈와 아들인 피터 디코스터즈에게 각 3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인 퀄리티 에그사가 680만 달러(약 74억5,000만원), 기관대표인 디코스터즈 부자가 각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씩 총 7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0년 오하이오 주의 양계장에서 발생한 살모넬라 계란 파동으로 감염된 소비자의 수가 수 천에 이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코리아헤럴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시내에 등장한 대형 솔...1,400인분 치킨수프

보스니아 사라예보 시내에 지름 2.5m짜리 솔이 내걸렸다. 요리사 100여 명이 기네스북에 이를 ‘치킨 수프’를 만들기 위해, 닭고기 1톤, 야채 300kg을 손질해 8시간의 요리 끝에, 1만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치킨 수프가 만들어졌다. 완성된 수프는 구경꾼 수백 명과 어려운 이웃들이 나눠 먹었다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다. [SBS] 양계